

I. 시작하는 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로운 이야기, 힘이 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별로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썩 은혜롭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거룩한 안식일 날,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II. 중심 말씀

1.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 아닐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 내주신 이유는 그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2.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놀라고, “권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권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권위, 곧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다시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삶에 능력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동행의 삶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해집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다스려 사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한 주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능력,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321)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